

# 복과 죄 갖고 왔다 가는게 인생

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입관(入棺)된 뒤 멀리서 온 가섭존자가 이를 슬퍼하며 울자 부처님께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놓으시며 광명을 비추었다는 니련하반과시쌍부(泥連河畔顯示雙趺)이다. 이 세 가지 일화가 조사선의 교외별전(敎外別傳)에 있다고 한다. 효산 스님은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세존이 삼척전심한 것이 선지(禪旨)가 되고, 일대교설이 교문(敎門)이 되었다고 선언하였음을 강조했다. 효산 스님께 공부법을 물으면 누구에게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가르쳐 주신다.

“간절한 의심을 잡아 풀어놓아 나아가다 조금씩 옆으로 빠져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침삼매(昏沈三昧)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이 보면 분명 자고 있는데 스스로는 자고 있는 줄을 모르며 선정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선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 절대 졸지 않도록 수마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엔 조금씩 졸다가 나중엔 그냥 통잠을 자면서도 공부는 잘한다고 하거든...”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다보면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된다. 앉으나 서나 가나 누우나 깨어 있을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의정이 끊어짐이 없이 화두에 몰입하고 있는 동정일여가 되면 그 다음은 깊은 잠에서도 의정을 떠나지 않는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경지가 된다. 숙면일여를 오매일여(寤寐一如)라고 하는데, 깨어 있거나 잠에 빠져있거나 항시 삼매가 유지 된다는 뜻이다. 이 오매일여의 단계를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라고 하는데, 다시는 보통사람의 삶으로 퇴전되지 않는다는 뜻이란다.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성성적적(惺惺寂寂)의 단계인데,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함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 공부를 해 보면 잘 안되어도 그 의심을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경계가 훌쩍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공부했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고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조바심을 내지 말고 진득하게 공부해 보세요.”

간화선 공부를 간절히 하다보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100% 내어 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단다. 이 길이 가장 수승하지만 그 다음 차선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전 우주와 허공에 가득 찬 불보살의 가피(加被)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일체 어려움을 다 막아버리고 좋은 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반드시 전생 인(因)과 현생 연(緣)이 닿은 것으로 쉽게 풀릴 수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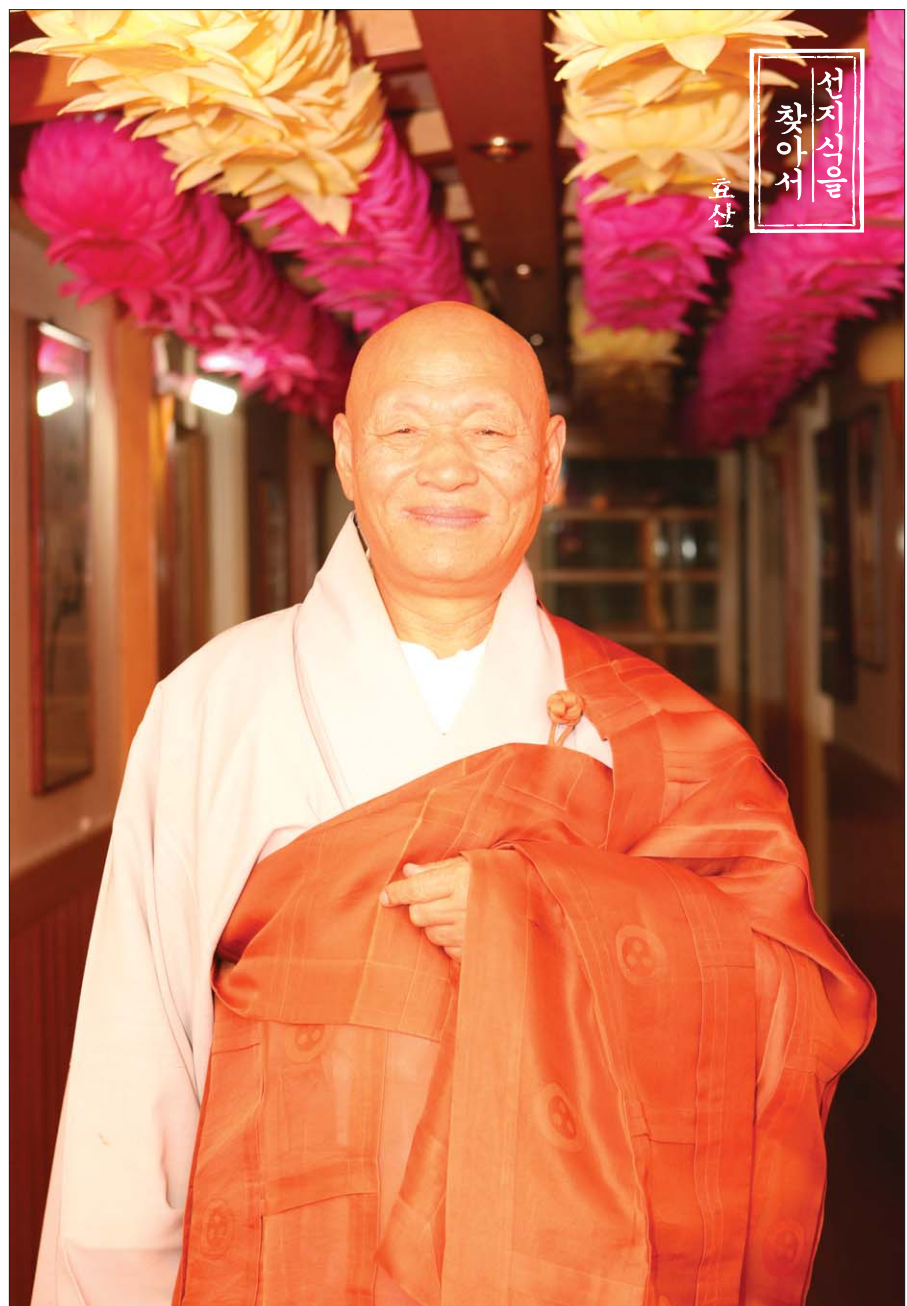
요. 금생에 생기는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으나 차단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복 달라고 구걸하면서 살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요. 화두참선을 통해서 얻는 복과 능력은 크지만 기도를 통해 이루는 복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화두참선을 해야 합니다.”

화두 참선을 통해서 얻는 복은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무무의 복이지만, 기도를 통해 얻은 물

질적인 복은 유한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효산 스님은 금명이를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자꾸 은덩이를 달라고 하니 여쭙 수 없이 기도 공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올 때도 복과 죄를 가지고 왔고 갈 때도 반드시 복과 죄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세상 끝내고 돌아갈 때는 죄보다는 복을 훨씬 많이 지고 가야지요.”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효산 스님은 1934년 전남 순창에서 출생하여 13세 때 동진출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득도. 17세부터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등 40년 넘게 제법선원에서 수행. 2002년 부산 연지동에 효산선원을 개원. 지금은 효산선원에 주석.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29> 범룡 대선사

2005년 9월, 금강선원 식구 40여 명이 차 한 대를 대절하여 동화사 성지순례를 갔다. 모든 사람들이 대웅전 약사부처님 앞으로 가는데, 나는 웬지 비로암에 들르고 싶어 갔더니 뜻밖에 오대산에서 한번 봐온 적이 있는 범룡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셨다. 시봉스님이 말했다.

“오랫동안 요양 중에 계시어서 사람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옛날 오대산에서 미감을 하던 초연 수좌가 왔다고 하면 알 것입니다.”

하였더니 반갑게 맞아주셨다. 92세의 나이로 범람이 72세가 된데다 청정한 계율로 평생을 살아오시다 보니 기력이 쇠

의 구도행각'을 백일 추모집으로 엮겠다 하여 <중생성불론>이란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낸 일이 있다.

스님은 1914년 평남 평산에서 태어나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스님이 되고, 오대산 상원사 한암 스님 회상에서 비구계를 받고, 상원사 수덕사 유점사 범어사 등 여러 선방을 거치면서 수행 정진하다가, 1980년 동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1994년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조실로 계셨다. 그런데 말년에 동화사 비

스님께서 기억을 하여 여기 다시 기록한다.

“단지 중생이 어두워 제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므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적멸도량에서 일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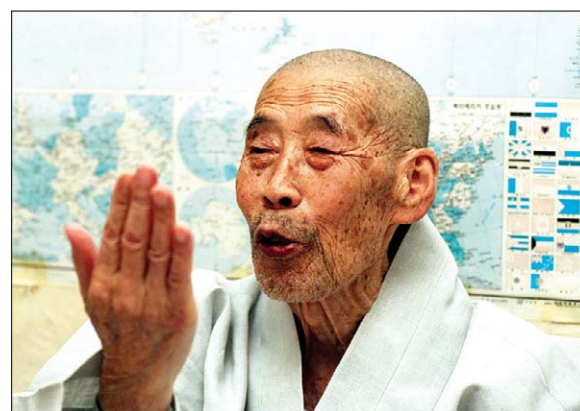
보리도량에 이르러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이 모두 계율이 아니라

이것이 범룡 스님의 <화엄경> 법문이다. 원래 선사는 선에만 능한 것 같으나 한 생각 터지면 그 말씀이 모두 경이 되고, 그 행

이 모두 계율이 된다. 그래서 스님은 경·율·논·선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율사가 선사요, 경사가 율사요, 논사도 논사이기 때문이다. 선이 없이 어떻게 경·율·논이



### 선만 능한 것 같으나 말씀 터지면 모두 '경' 행은 '계율'

진해 있었다.

“오래 살다보니 옛 사람을 만나 보게 되는구먼.”

“그때 스님께서 수타사에서 가져오신 인삼을 한 대접 주시어, 고구마 먹듯 한 그릇을 다 먹어 치운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때가 좋았지. 종종 신문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자네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가물가물해.”

하시며, 오대산에서 쓰셨다는 <보조국사 절요> 사본 1권을 주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 12월 15일 열반에 드시니 종단에서는 전국 수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강원도 영월 서봉사 주지 배부성 스님께서 1956년부터 수타사에서 잣나무, 못나무, 은행나무, 인삼을 재배하며 선농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여 '선재동자

로전에서 만나뵈게 되었으니 만 가지 일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 같았다.

흔추가 90이 넘으셨으니 다소 살집은 빠졌으나 팔자(八字) 눈썹에 가무스레한 눈은 옛 부처님 미소 그대로다. 법상에 올라가면 가사자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번번이 있었으나 주장자를 왼 손은 다이아몬드 보다 더 강했다.

“법계는 원적(圓寂)하여 처음과 끝이 없고 법신은 청정하여 참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원융한 법성(法性)은 이름과 모양 없으나 항상 환출하게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다음 구절은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서봉사 정선

경·율·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범룡 스님은 평생시 말씀 많이 하시지 않고 선사가 오면 선사에게 법문을 시키고, 경사가 오면 경사에게 법문을 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스님의 행이 그대로 법률이 되어 나중에 조계종 율원의 종사가 되기도 하였다.

스님 돌아가신 뒤 정선 스님이 서봉사 숲속에 하얀 탑을 세우니 마치 그 모습이 책과 같았다. 우리는 다같이 책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그림자 있는 탑 속에 화엄의 사리를 묻어버린 대선사여,

오늘도 당신은 능엄삼매 속에서 선재동자의 구법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 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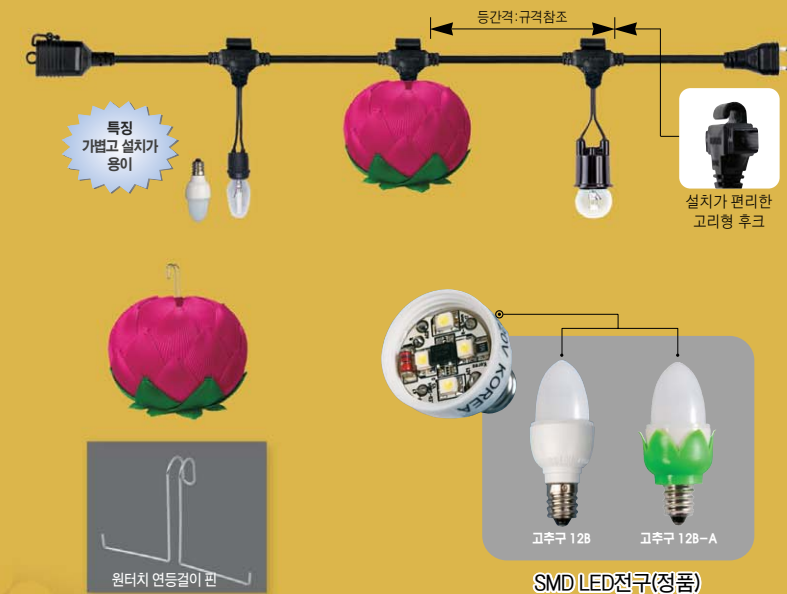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제, 기제사 외
- 능승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 사찰 연등 및 전선 (범용형)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범람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간전지용초, 방생, 탈탈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 연등(정품)

범람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범람,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